

“‘여민가의’ 정신으로 군민과 함께 땀 것”

김철우 보성군수, 시정연설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 제시 탄소중립 등 핵심과제 언급



의 자세로 ‘다시 뛰는 보성 3·6·5’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종합정령도 2등급, 전남 1위 달성 ▲지방소멸대응기금 168억 원 확보 ▲2,185억 원 규모 여자만 국가 갯벌 해양정원사업 추진 ▲430억 원 규모의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행안부 정부혁신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등을 주요 성과로 꼽으며, 군민과 의회,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낸

접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2023년 군정 운영 방향으로 ▲소의 없는 복지, 군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행정 ▲다 함께 잘사는 농·어업 육성 ▲매력 넘치는 문화체육관광 ▲녹색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등 5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보성형 노인일자리 사업 ▲마을 복지600사업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농어민 공익수당 120만 원 연차 확대 ▲보성기위적극 육성 ▲제2회 통합축제 개최 ▲특색있는 해양·산림 관광인프라 구축 ▲2050 탄소중립 중장기 계획 마련 ▲조성 제2농공단지 조성 ▲신흥동산 종합개발사업 준공 ▲어업기반시설 마련

등을 각 분야의 핵심 과제로 언급하며, 예산 1조 원 시대의 기틀을 마련해나간다고 밝혔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복지 분야, 경제 활성화 등 군민의 삶에 꼭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새해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여접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군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보성군은 2022년 본예산 5,896억 원보다 304억 원 증액된 6,200억 원을 2023년 본예산으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으며, 12월중 군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보성=백종두 기자

화순탄광 89년 역사 새긴다 아카이빙 구축 보고회 개최

화순탄광이 내년 말 폐광을 앞두고 탄광의 89년 역사를 기록물로 남기기 위한 작업이 추진된다. 화순군은 지난달 30일 화순탄광의 변천 과정을 기록화하기 위해 ‘화순탄광 아카이빙 구축 사업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용역 작업에 돌입했다. 화순탄광 아카이빙 구축사업은 화순탄광의 역사를 기록화해 탄광지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공유의 장으로 활용하고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한다. 화순군은 2023년 말까지 화순탄광의 역사적 사실을 정리한 메모리북, 탄광노동자와 주민을 밀착 취재한 다큐멘터리 영상, 사진집, 홍보물 제작·전시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어 탄광노동자들이 실제 사용했던 물품과 그에 얽힌 이야기도 수집하고 향유 석탄박물관 전시 등 문화관광 사업과 연계할 예정이다. 지난 1934년 채광을 시작한 화순탄광은 국내 1호이자, 국토 서남권의 유일한 탄광으로, 화순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만성 적자 상태에 있는 한국석탄공사를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결정하면서 내년 말 폐광을 앞두고 있다. /화순=이종백 기자

여수-남해, 동반 성장 자매결연

해저터널 건설 상생발전 도모

여수시와 경남 남해군이 지난달 29일 든든한 자매의 연을 맺었다. 여수시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장충남 남해군수, 김영규 여수시의회의장, 임태식 남해군의회의장, 양 기관의 사회단체대표들과 각 부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자매결연은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건설 이후 생활권 통합, 관광,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동반 성장을 이끌기 위한 첫 걸음으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여수시와 남해군은 지난해 9월 해저터널이 국가계획으로 확정됨에 따라 공동발전을 위한 자매결연을 추진해왔다. 특히 두 지역이 해저터널을 통해 30분대로 오갈 수 있어 공동 생활권의 확대에 동시 통합을 선도하고, 남해안 전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매결연 협약에 따라 여수시와 남해군은 행정·경제·교육·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고 우의를 증진해나가기로 약속했다. 또한 지역특화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



여수시와 경남 남해군이 지난달 29일 자매결연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여수시 제공

간부문에서도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남해군과 여수시는 오랜 세월 역사와 생활상을 공유해온 이웃사촌이다”면서 “오늘 소중한 자매의 연을 맺은 만큼 ‘행복한 동행 비상하는 남해군’과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가 힘을 모아 나간다면 빛나는 남해안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길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고흥 여성농업인센터 가족한마당 행사 성료

고흥 여성농업인 가족한마당 행사가 최근 고흥여성농업인지원센터에서 여성농업인을 비롯한 관련단체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가족한마당 행사는 여성농업인의 날(10월 15일)이 법정기념일이 된 첫해를 기념하고, ‘뚜벅뚜벅 소중한 삶’이란 주제로 여성농업인센터 이용자들이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서로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시장에는 회원들이 손수 준비한 토종종자, 제철꾸러미와 편이장비 등이 전시돼 농업의 중요성과 역할을 알리고, 각종 프로그램의 결과물인 작품감상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부대행사로 마련된 여성농업인 정책골든벨을 통해 여성농업인으로서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되짚어보며 현장의 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높였다. 한편 고흥군은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업참여 기회 활성화를 위해 고흥여성농업인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고흥=진종연 기자

화순야구장, 전지훈련지 ‘각광’

올해 약 2천여명 방문

화순군과 전남도교육청이 53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조성한 이양면 소재 화순야구장이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화순군은 최근 화순초등학교와 화순야구장에서 초등 야구팀 추계전지훈련과 화순고인들배 전국초등 야구대회를 개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추계전지훈련으로 대전, 천안, 평택, 정주 등 전국 8개 초등학교 야구팀의 선수, 관계자 등 250여 명이 화순군을 찾았다. 군의 적극적인 하계·추계 전지훈련 유치 노

력으로 올해에만 2,000여 명의 선수, 관계자가 화순야구장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군은 공인 규격(1만8,000㎡)의 야구 전문 구장으로 야간 훈련이 가능하고 최고의 훈련 시설이 마련된 점과 훈련장 무료 이용, 심판비 일부 지원 등 훈련활동의 적극 지원이 인기의 비결이라고 밝혔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안전한 훈련 여건을 조성해 스포츠메카 화순 만들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종백 기자



초등야구팀 추계전지훈련이 최근 화순초등학교와 이양면 화순야구장에서 실시됐다. /화순군 제공

클릭! 고흥 속으로



순천 향동, 김장 나눔·잔치날 행사

순천시 향동은 향동통장협의회 주관으로 최근 장안장작마당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및 잔치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사랑의 김장 나눔은 향동통장협의회 중심으로 절임배추 약 240kg를 김장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42세대에 통장들이 직접 전달했다. 같은 날 장안장작마당과 향동통장 협의회 주관으로 ‘향동 잔치날’ 행사도 열렸다. 관내 어르신 150여 명을 초대해 통장들이 직접 준비한 수육, 김장김치 등으로 식사를 대접했다. 순천시 향동통장협의회 김봉란 회장은 “앞으로도 외로운 이웃이 없는 지 구석구석 살피고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경석 기자



사랑도포차, 한려동에 1,200만원 후원

여수남만포차 ‘사랑도포차(대표 김한솔)’가 최근 여수시 한려동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성금 1,200만원을 연함모금으로 전달했다. 김한솔 대표는 “좋은 일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정택 한려동장은 “경기불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도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시는 김한솔 대표께 감사드린다”며 “위기기가 발굴에 더욱 힘써 모두가 함께 행복한 한려동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달된 후원금 1,200만원은 한려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2023년 연함모금 사업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여수=곽재영 기자



세방(주) 광양지사, 취약계층 쌀 기탁

세방(주)광양지사가 최근 골약동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200만 원 상당의 백미 20kg 44포대를 후원했다. 기탁된 쌀 44포는 골약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홀로 사는 노인, 취약계층, 경로당 등 복지 사각지대 대상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허인철 세방(주)광양지사장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서 든든한 겨울을 보내시도록 지역 주민에게 작은 위안과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박정금 골약동장은 “매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물품 등 다양한 나눔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세방(주)광양지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